



1인 가구, '전 연령' 의 문제다

2016. 3. 14 | 최정은_새사연 연구원 | jechoi@saesayon.org

향후 10년 안에 부부와 자녀로 이뤄진 2세대 가구 못지않게 1인 가구가 많아질 전망이다. 노인 세대와 청년 세대들의 상당수가 1인 가구에 속해 있다. 가족 단위가 많이 해체되고 1인 가구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대응은 미흡하다.

저성장 시대에 일자리마저 불안정하다면 일상생활을 유지하거나, 장밋빛 미래를 준비하기는 쉽지 않다. 한국 사회에서 노인 세대가 처한 암담한 현실은 익히 잘 알려져 있다. 우리의 노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늦은 나이까지 일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궁핍한 생활을 이어갈 뿐만 아니라 고립감에 자살율도 가장 높은 세대들이다. 이처럼 한국 노인들이 마주하는 현실은 개인의 노동 여력이 불충분한데다 만성 질환 등으로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은 데서 기인하는 특정 세대의 문제로 여겨진 측면이 있다.

그러나 혈기 왕성한 청년 세대들이 마주하는 현실이 노인 세대가 맞닥뜨린 어려움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데 심각성이 크다. 현 청년세대들은 고학력임에도 취업도 어렵고 일을 하더라도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로 살아갈 수 밖에 없는 현실에 처해있어, 연애는 물론 결혼과 출산도 포기한 '삼포세대', 이에 더해 내 집 마련이나 인간관계마저 포기하는 '오포세대'로도 상징되고 있다.

이처럼 노인 세대와 청년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온전히 개인의 역량과 책임으로 감수하면서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들의 상당수는 1인 가구에 속해 있다. 즉, 이전에는 개인의 경제력, 질환, 돌봄 등에서 가족 구성원의 도움을 받아왔으나, 그마저도 한계에 다다랐다는 이야기이다. 가족 단위는 이전과 달리 급격히 해체되고 있으며, 1인 가구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른 우리 사회의 대응이 어느 때보다도 시급하다.

'1인 가구' , 노인뿐 아니라 청년 세대도 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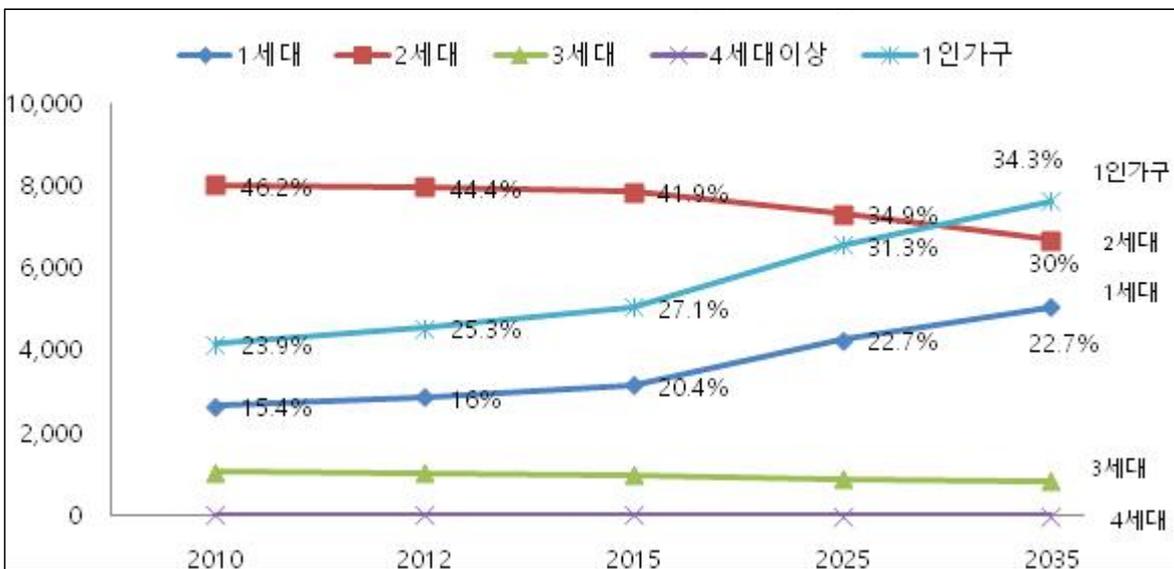
향후 10년 안에 2세대 가구 못지않게 1인 가구가 많아질 거란 예측은 이미 낫설지 않다. 지금까지는 자녀수가 줄긴 해도 부모와 자녀로 이뤄진 2세대 가구가 보편적이었다.



그러나 1인 가구가 이대로 계속 증가한다면 곧 그 순서는 뒤바뀔 수 있다.

‘장래가구추계’(통계청)에 따르면이라도 자녀가 없는 부부로 이뤄진 1세대 가구나, 혼자 사는 가구는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2010년 인구총조사로 보면 2세대 가구는 전체의 46.2%, 1인 가구는 23.9%, 1세대 가구는 15.4%였다. 그러나 2025년에는 2세대와 1인 가구 비중이 각각 34.9%, 31.3%로 비슷해지고, 1세대 가구도 22.7%로 평균 될 전망이다(통계청, 2012a). 지금부터 20년 후에는 1인 가구가 가장 보편화된 가족 형태가 되리란 전망이다(그림 1 참고).

그림 1. 세대별 유형과 1인 가구 추이(단위: 천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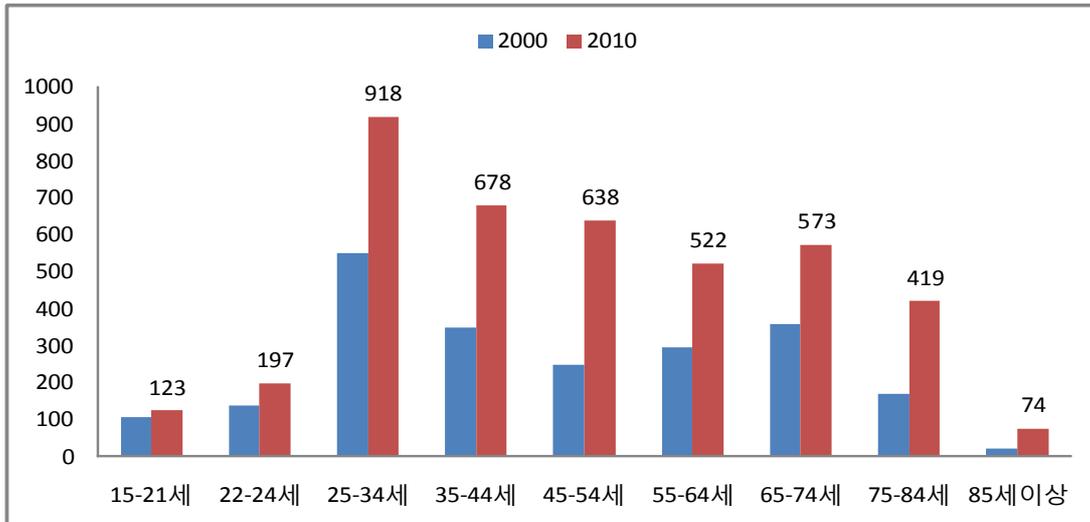
자료: 1세대(부부), 2세대(부부+자녀, 부+자녀, 모+자녀),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2010년~2035년”, 2012.

1인 가구는 전 연령대에 걸쳐 고르게 증가하고 있다. 성인이 된 이후 독립해 학업을 이어가거나, 노년기에 사별해 혼자 사는 사람들이 1인 가구의 주를 이루었다. 지금은 청년 세대에서 결혼을 미루거나 비혼을 선택해 혼자 살거나, 직장이나 자녀교육 등으로 떨어져 사는 중년 부부 혹은 이혼 가구 등으로 1인 가구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통계청, 2012b).

연령대별 1인 가구는 2000년에 222만3천 가구였다면, 2010년 현재는 414만2천 가구로 10년 사이에 2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25~34세 청년이 36.7만 가구, 45~54세 중년이 39.2만 가구, 75세 이상 노년이 30만 가구 이상 늘어나 1인 가구의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그림 2 참고).



그림 2. 1인 가구 연령대별 추이(2000년과 2010년 비교)(단위: 천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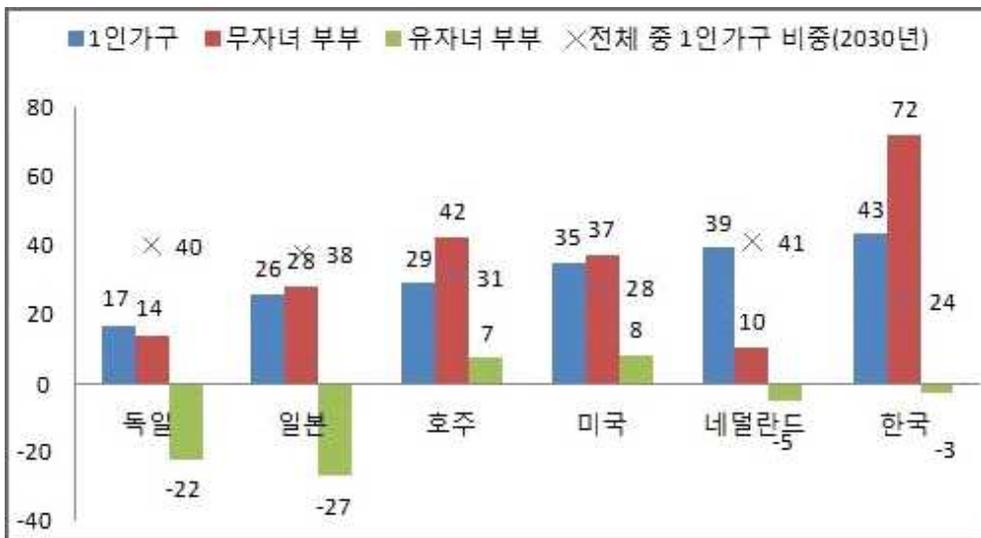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1인 가구 현황 및 특성” 보도자료, 2012.

우리뿐만 아니라 이미 전 세계적으로도 1인 가구는 급속도로 늘고 있다. OECD 주요국의 가구형태별 전망을 보면 그 추이는 더욱 선명해진다. 2000년대 초중반부터 2030년까지 30년간 인구 전망을 보면(OECD, 2011), 한국의 1인 가구 43% 증가, 무자녀부부는 73% 증가, 유자녀부부는 -3% 성장하리라 예측된다.

OECD 전망대로라면, 2030년 한국의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24%를 차지할 전망이다. 사실 OECD 전망보다도 우리 사회는 더 빠르게 1인 가구 사회로 향하고 있다. 독일이나 일본에서도 향후 15년 안에 전체 가구의 40%가 1인 가구를 형성할 것으로 예측된다(그림 3 참고).

그림 3. OECD 주요국의 1인 가구 전망



자료: OECD, “the future of families to 2030”, a synthesis report, 2011.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애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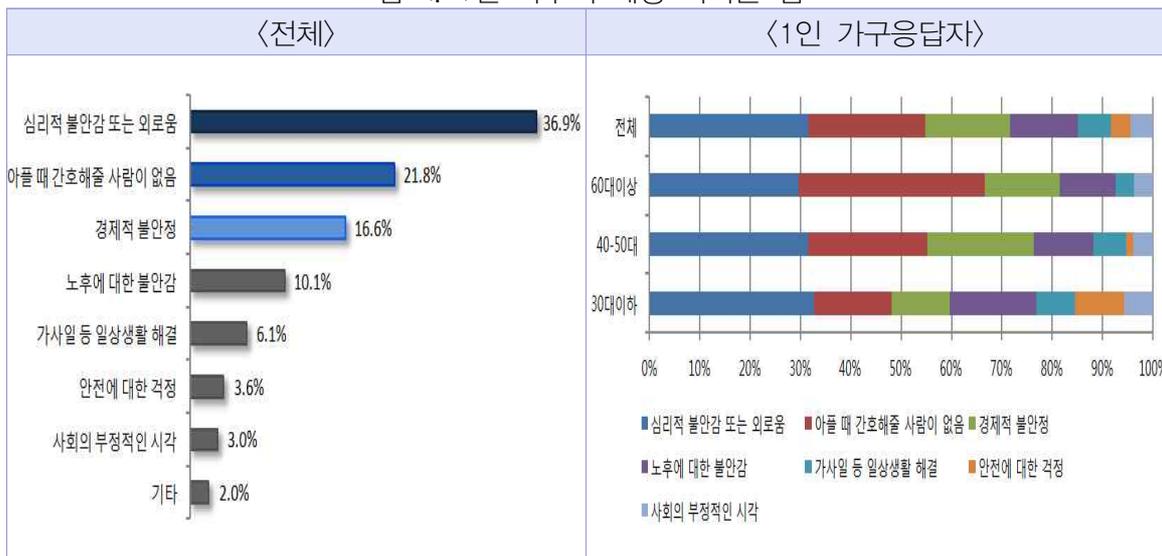
1인 가구, 고립과 미래 불안 가중

한동안 ‘골드미스(Gold Miss)’와 같이 1인 가구 앞에는 ‘화려한’이라는 수식어가 많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1인 가구의 실상은 이와는 여러 모로 다르다. 가부장적인 틀을 깨고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사는 1인보다, 여러 사회와 경제적인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인 가구로 살아가는 이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1인 가구가 왜 늘고 있는가에 대한 조사가 온라인 토론으로 이어진 바가 있다. 1인 가구 당사자도 참여한 최근의 설문결과를 보면, 40대 이상 세대들은 가족 가치 약화와 개인주의 심화를 1인 가구 형성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는다. 이에 반해, 30대 이하의 청년 세대들은 다인 가구에 비해 고용불안과 경제여건, 비혼 증가 등을 가장 큰 원인으로 진단하고 있다(국민권익위원회, 2014).

연령대별로 1인 가구 당사자나 이들을 보는 일반인의 시각은 다를 수 있으나, 1인 가구들이 느낄 외로움과 고립에 대한 걱정은 같았다. 30대 청년세대들은 일자리의 불안정과 결혼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노후 준비를 가장 크게 걱정했다. 중년 세대들은 경제적 불안정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고, 노년 세대들은 건강이 좋지 않을 경우 간호해줄 사람이 없는 점을 가장 크게 두려워하고 있다(그림 4 참고).

그림 4. 1인 가구의 예상 어려운 점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1인 가구 대책 마련 위한 국민신문고 온라인 토론 투표 결과 발표”, 보도자료, 2014.

1인 가구들도 여가 시간에 친구를 만나거나 문화생활을 즐기지만, 이들에 대한 주변의 인식이나 편견으로 관계망이 협소해질 우려가 높다. 가족의 울타리에 있지 못한 1인 가구들에게 지역과 이웃의 친밀감이나 관계성은 중요하다. 특히 노인 고독



사 문제가 지역사회 문제로 크게 떠오르고 있다. 장기질환으로 거동조차 어려운 노인들이 추운 겨울을 견디지 못하고, 연고 없이 외롭게 세상과 등지는 뉴스들을 자주 접하게 된다.

1인 가구의 선호에 맞춰 오피스텔이나 소형아파트 등 주거공간이 많이 생겨나는 추세지만, 혼자 살면서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이 적지 않다. 1인 가구와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는 지역사회의 돌봄이나 관계망이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 이 때문에 설문결과에서도 1인 가구들이 함께 생활하는 ‘공동거주제’나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매우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1인 가구, 다인가구에 비해 열악

1인 가구가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경제력이다. 1인 가구 안에도 화려한 싱글을 보내는 이들에게서 고시원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그 범위가 다양하긴 하다. 그럼에도 보통의 1인 가구는 그 어느 가구 형태보다도 소득이나 소비, 재산 수준에서 고령의 노인 세대와 별반 다르지 않은 환경에 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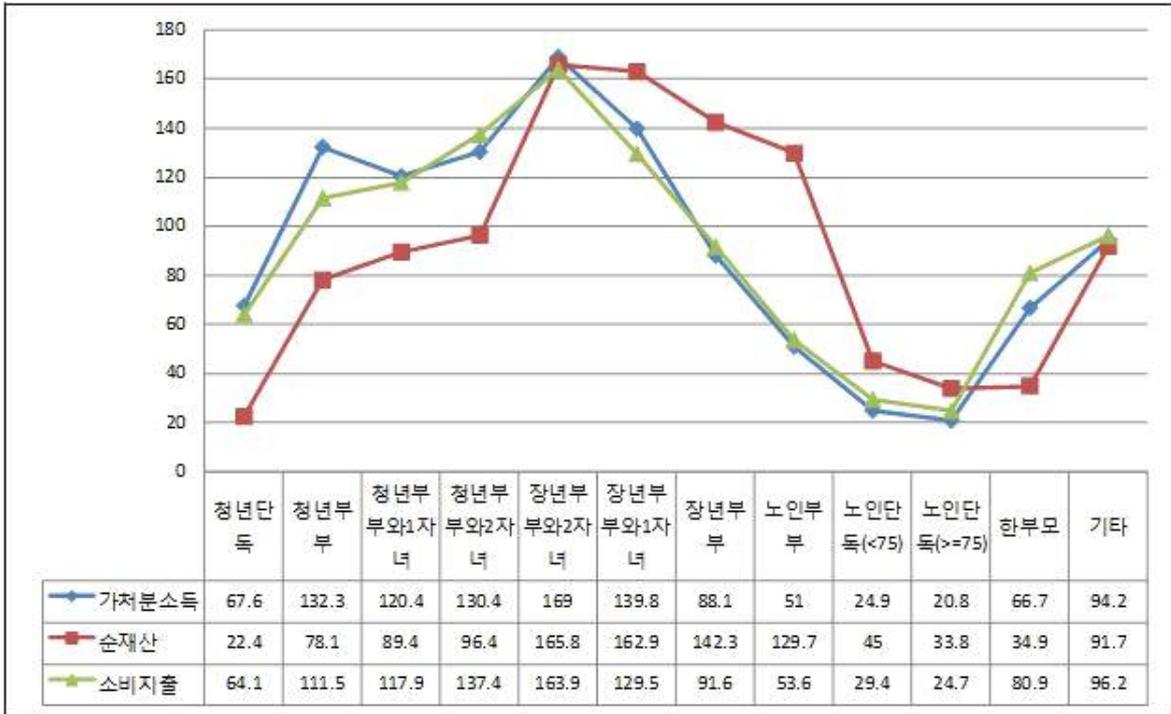
이처럼 1인 가구가 선호 제품이 소형화되었다고 해서 소비지출마저 줄어든 것은 아니다. 1인 가구의 경제력은 다인 가구에 견줘 매우 열악하다. ‘국민생활실태조사’를 활용해 가구별로 소득과 소비, 재산수준을 비교한 연구결과를 보면(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부부로 구성된 가구형태보다 1인 가구의 가처분소득, 순재산이나 소비지출 수준 모두 열악하다. 노인 세대 중에서도 75세 이하 1인 가구는 전체 평균(100)에 비해 가처분소득은 24.9%, 순재산은 33.8%, 소비지출은 29.4%로 매우 낮고, 75세 이상 1인 가구의 경제력은 보다 더 뒤쳐져있다.

1인 청년세대의 전체 평균(100) 대비 가처분소득은 67.6%, 순재산은 22.4%, 소비지출은 64.1%로 1인 노인 세대와 함께 다인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어렵다(그림 5 참고).

1인 가구의 소득 수준이 낮은 것은 일자리의 불안정과 무관하지 않다. 35세 미만의 청년단독 가구와 청년부부 가구를 비교해볼 때도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청년단독 여성과 남성이 청년부부 남성과 여성에 비해 상용직 종사 비율이 낮다. 상용직 종사자는 부부 남성이 79.9% > 단독남성이 67.9% > 부부여성이 53.7% > 단독여성이 52.3% 순으로 높다. 이와 반대로 임시일용직 비율에서는 단독여성이 38.5% > 단독남성이 22.8% > 부부 남성이 11.9% > 부부여성이 10.9% 순으로 높다(그림 6 참고). 이처럼 35세 이하 청년 세대 안에서도 결혼한 가구보다 1인 가구의 일자리 불안정성이 더 높고, 1인 여성 가구의 경제적 불안정성이 가장 심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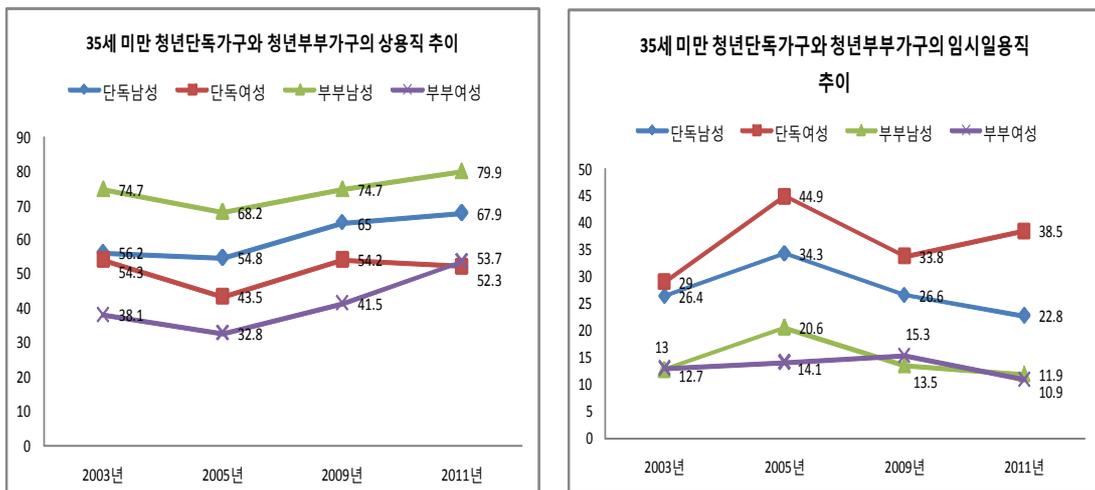


그림 5. 가구유형별 소득·재산·소비 수준(전체가구 평균=100)(2011년)



출처: “국민생활실태” 원자료를 활용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형 복지모형 구축”, 2015 재인용.

그림 6. 35세 미만 청년단독가구와 청년부부가구의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추이 (단위 : %)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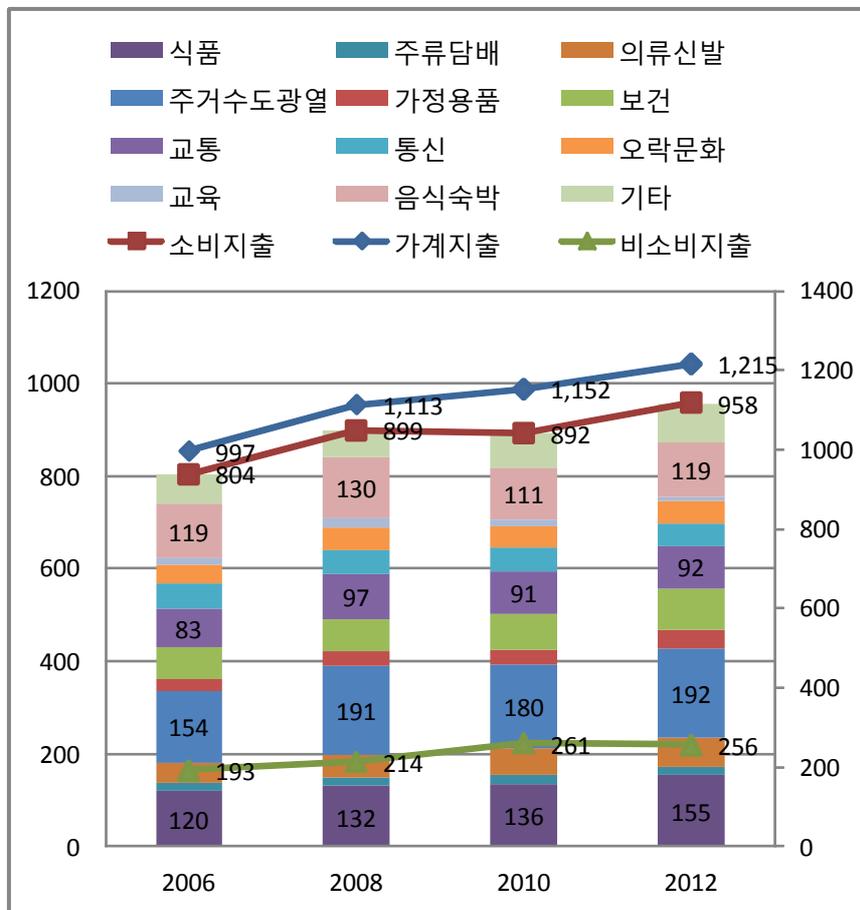
1인 가구의 적자가구 비중도 매년 커지고 있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보더라도 1인 가구의 적자가구 비중은 2006년 31.8%에서 2012년 현재 38.8%로 7%p



나 늘었다. 1인 가구의 가계지출의 68% 가량은 생활하는 데 가장 기초 생활비로 쓰인다(반정호, 2014).

2012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가계지출은 121만5천원으로, 소비지출이 95만8천원이고, 연금 등 비소비지출이 25만6천원이다. 소비지출은 식품비로 16만2천원, 주거수도광열비에 20만1천원, 음식숙박비에 12만4천원, 교통비로 9만6천원, 보건비로 9만2천원 등 상당의 지출이 기초 생활비로 쓰여, 교육 등에 지출 여력은 이전보다 오히려 줄어들었다(그림 7 참고).

그림 7. 1인 가구의 소비 추이(단위:천원)



자료: 반정호, “1인 가구의 고용과 빈곤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14.

1인 가구, 관심과 지원 필요해

1인 가구가 맞닥뜨린 또 하나의 문제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다. 1인 가구가 증가한 이유를 가치관 변화 등 개인의 문제로 보기도 하나, 늦은 취업과 실업 등의



불안한 사회경제적 환경이 결혼이나 자녀를 낳아 가정을 이룰 계획마저 낮추고 있다. 결국 현 청년 세대가 겪는 어려움이 우리 사회의 불투명한 미래와 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국가의 존폐를 가르는 저출산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한편에서는 혈연이나 친족 단위를 넘어 1인 구성원들이 또 다른 사회적 가족을 이루고 살아가는 대안적인 방안도 활발히 실험되고 있다. 1인 가구들이 공동체주택을 형성하는가 하면, 지역 사회 안에서 1인 어르신들을 위한 사회적 돌봄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이 방안들은 개인의 재정과 예산의 제약으로 대상이 협소하다는 한계를 남기고 있다.

최근 광역시 차원에서 청년과 노인 세대를 아우르는 1인 가구를 위한 조례안이 마련되었다(서울시의회, 2015). 서울시는 1인 가구를 위한 조례안을 통해 그동안 정상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않았던 1인 가구의 사회적 참여를 확대하고, 삶의 질을 보장하는 복지를 뒷받침할 방안이다. 게다가 5인~10인 이상의 공동생활가정과 소셜다이닝(Social-Dining) 등을 통해 사회적 관계망을 강화해나갈 계획도 세웠다. 또한 나눔 활동 등을 통한 공유사회 실현, 1인 가구 개인의 삶을 존중하는 등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제까지 우리 사회는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식하고 이들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까지 마련해놓지 못했다. 1인 가구 다수가 혼자 생계를 이어갈 뿐 아니라 사회와의 고립과 이로 인한 외로움의 그늘까지 안고 살아가고 있다. 1인 가구도 우리 사회와 경제 환경으로 인해 생겨난 새로운 가구 형태 중 하나다. 이들을 위해 보다 광범위한 차원에서 조례를 만들어 지원에 나선 것은 고무적이다. 1인 가구들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식도 바뀌가면서, 이들을 위한 사회복지망 마련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참고문헌]

국민권익위원회, “1인 가구 대책 마련 위한 국민신문고 온라인 토론 투표 결과 발표”, 보도자료, 2014.
반정호, “1인 가구의 고용과 빈곤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14.
서울시의회,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안”, 2015.9.11.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2010년~2035년”, 2012a.
통계청, “1인 가구 현황 및 특성” 보도자료, 2012b.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형 복지모형 구축”, 2015.
OECD, “the future of families to 2030”, a synthesis report, 2011.



2016년 새사연 발간 보고서

2016년 3월 14일 현재

아젠다	발간일	제목	작성자
고용,노동	1/7	노동개혁, 노동자는 없고 기업만 있다	송민정
고용,노동	1/12	노동시장, 유연화보다 소비확대가 우선이다	새사연 노동경제팀
주거	1/15	2016 부동산 시장은 '위험한 균형' 유지할 것	권순형
정치	1/18	야당은 왜 존재하는가?	손우정
농업	1/25	농업의 지속가능성, '쌀' 과 '소득' 에 있다	장경호
주거	1/29	2016년에 대한 기대, 사회주택 활성화의 원년	강세진
복지	2/1	갈등의 복지, 불평등에 '응답하라'	최정은
고용,노동	2/5	지표와 정책으로 본 청년 고용의 현황과 과제	송민정
미디어	2/12	'사이비' 로 몰리는 인터넷 매체, 본질은 '여론 통제' 다	김시연
잇:북	2/18	2016 전망보고서	새사연 미디어센터
주거	2/25	서울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의 역할	강세진
복지	3/14	1인 가구, '전 연령' 의 문제다	최정은